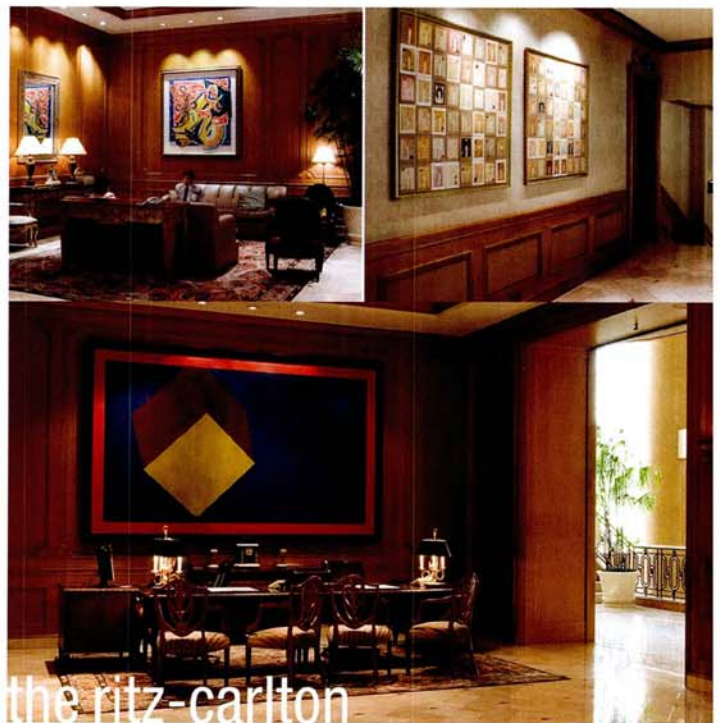


# 미술관에 없는 미술품들

미술 작품을 감상하려 꼭 미술관이나 박물관까지 갈 필요는 없다. 오늘 호텔에 갈 일이 있다면, 비즈니스 업무를 볼 일이 있다면, 혹은 병원에 갈 일이 있다면, 건물 안에 들어가 잠시 주위를 둘러보라. 거기 당신이 무심히 지나친 적이 있는, 감성을 깨워줄 예술 작품 하나가 있을지도 모른다. 에디터 유소라 사진 장태규 참고 자료 <조영남 길에서 미술을 만나다> <조영남 지음/주말간미술>

1%의 미술.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비용의 1% 정도를 예술품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한 문예진흥법에 의한 환경 조형물을 말한다. 수년 전엔 이 의무 조항이 그저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으나, 도시 환경에 대한 문화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업이나 건물주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의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설치해 화제를 모으기도 한다. 지난 몇 해 전에 포스코센터 앞에 설치된 <아마벨 (Amabel)> 헤프닝을 기억하는가. 세계적인 추상주의 미술가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의 작품인 <아마벨>의 형상이 추악하다는 일부 사람들의 비난에 이 거액의 예술 작품은 철거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 이 헤프닝은 당시 환경 예술에 대한 낮은 인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지만, 한편 건축물과 예술, 혹은 도시와 예술의 조화에 대한 화두를 일반인들이 접한 첫 사례기도 했다. 이제는 더 이상 건축물과 어우러진 미술작품이 화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의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훌륭한 미술 작품들을 접하고 있다.

Arts in Hotels 호텔 내의 미술 작품들은 호텔의 품격을 보여주는 데 한몫한다. 호텔 곳곳에 배치된 미술 작품들은 그 호텔의 분위기와 특성을 전달하고, 호텔의 문화 수준을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적인 명화와 예술품들을 많이 소장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호텔리츠칼튼서울에서는 유럽풍의 우아한 인테리어 디자인과 어울리는



600여 점의 미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호텔리츠칼튼서울 곳곳에서는 미술품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객실마다 미술품 한 점 이상이 걸려 있고, 로비와 복도, 레스토랑 등에는 유럽풍의 우아한 분위기와 어울리는 그림들이 걸려 있다.



1 최민호, 파크하얏트 객실. 2 (앞)이우환 <In Milano No.5>, 1992, 리토그래프 <뒤>이우환 <From a Revelation2>, 2003, 리토그래프, 파크하얏트 객실 복도. 3 천광엽, 파크하얏트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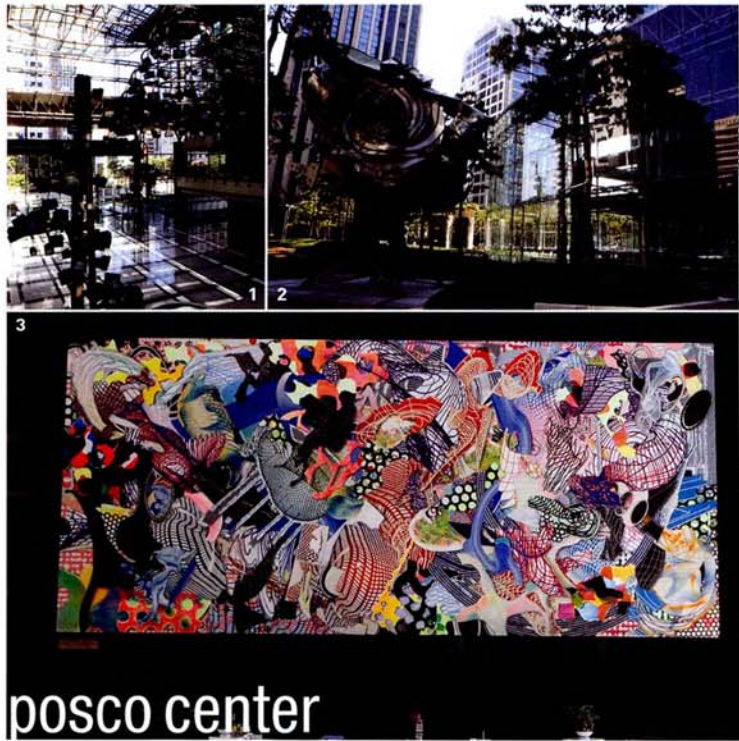
미술품들을 호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호텔리츠칼튼서울에는 객실마다 미술품 한 점 이상이 걸려 있고, 로비와 각종 복도 등에 걸려 있는 작품들까지 합치면 총 600여 점의 미술 작품이 호텔 내에 소장되어 있다. 여기에는 파블로 피카소, 로이 리히텐슈타인, 뎡 골드, 프랭크 스텔라 등 이름만 들어도 그 예술성이 느껴지는 거장들의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W서울위커텔 로비에 설치돼 있는 <우든 미러(Wooden Mirror)> 는 이미 호텔 오픈 때부터 화제가 된 작품이다. 사람의 동작에 따라 나무 큐브가 움직이는 이 나무 거울은 디지털 아티스트 다니엘 로진(Daniel Rozin)의 작품으로 그 원리의 신기함 때문에 사람들이 이 나무 거울 앞을 왔다 갔다 하는 풍경을 자아내기도 한다. 이외에 레스토랑 '키친(Kitchen)'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사이에 놓인 이재효의 <메이즈(Maze)> 등은 스타일리시하고 팬시한 W서울위커텔의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반면 파크하얏트에서 볼 수 있는 미술 작품들은 보다 심플하고 전통적이다. 각 층 객실의 엘리베이터 앞에는 심플한 추상화들이 걸려 있고, 객실 복도에는 답십리 골동품 가게에서 발품을 팔아 구입했다는 공예품들이 있어 손님들에게 마치 박물관을 관람하는 느낌을 준다. 또한 모든 객실에는 자연이나 정물을 담은 흑백사진들이

걸려 있어 전체적인 객실의 통일감을 준다. 이 사진 작품들은 모두 작가 최민호의 작품으로, 한국적인 미를 접목시킨 파크하얏트의 디자인 컨셉트와 잘 어울린다.

Arts in Buildings 앞서 잠시 언급한 대치동 포스코센터 앞의 <아마벨>의 정식 이름은 사실 <꽃이 피는 구조물(Flowering Structure)>이다. '아마벨'이라는 애칭은 이 작품이 완성될 당시 작가 프랭크 스텔라의 친구 딸이 19세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소녀의 이름 '아마벨'에서 유래되었다. 이름대로 이 거대한 철물 구조물은 찌그러지고 뭉개진 철 모양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꽃 형상을 이루어 '철제물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의 꽃'이라는 기이한 느낌을 준다. 지난 사건 때문인지 아마벨 주위에는 현재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 구조물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거역의 예술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포스코센터에는 이 거대한 구조물 외에도 첨단기업 이미지를 주는 미술품들이 여럿 있다. 먼저 로비에 들어서면 눈에 띄는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설치 작품 <TV 갈대기>와 <TV 아트>는 '철강회사'와 '첨단'이라는 두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 같이 어우러져 하나의 작품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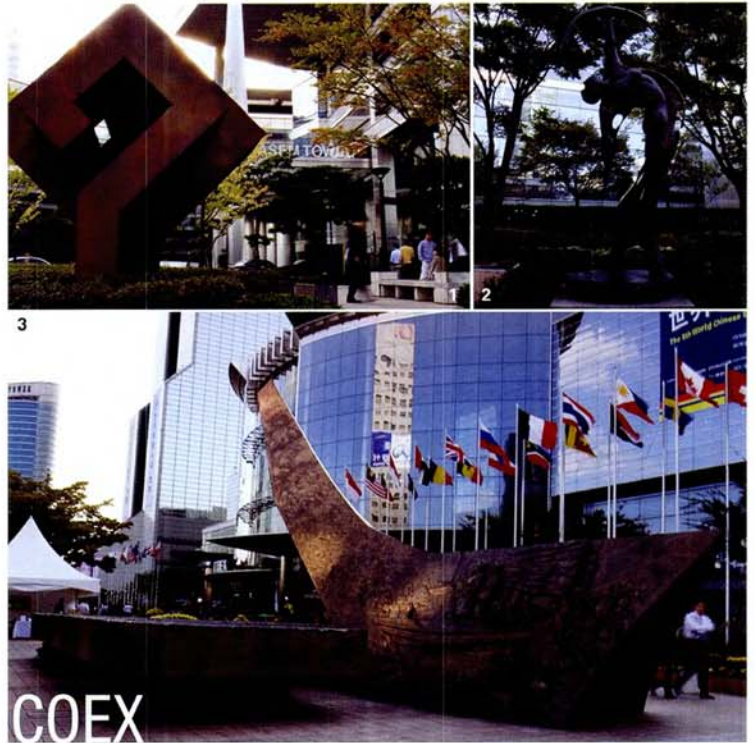
1 (앞)백남준 <TV 나무>, 1995, 혼합재료/ (뒤)백남준 <TV 갈대기>, 1995, 혼합재료, 포스코센터 로비.  
2 프랭크 스텔라 <꽃이 피는 구조물>, 포스코센터 정문 외부.  
3 프랭크 스텔라 <전설 속의 철의 섬>, 1997, 캔버스에 아크릴릭, 포스코센터 안내 데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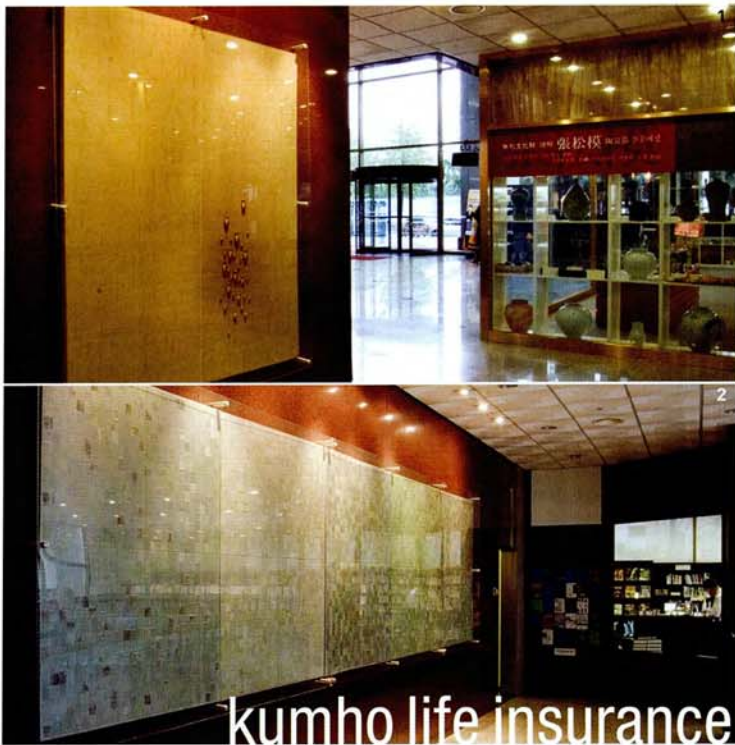
보이는 이 두 거대한 설치 예술품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보이는 것이 또 하나의 매력이다. 이 건물의 안내 데스크에는 길이가 11m나 되는 화려한 색감의 그림이 걸려 있는데 이 역시 프랭크스텔라의 작품이다. 이외에도 포스코센터 야외와 내부에는 다양한 조형물과 그림들이 있어 마치 갤러리를 방문한 느낌이다.

건물 내부에는 정재규의 1991년 작 <석(石)과 연(蓮)>, 윤진숙 작가의 근작 <산책>, 고석원 작가의 2004년 작 <도큰 III> 등 독창적 작품이 건물 곳곳에 전시되었다. 건물 외부로 나가면 신문선의 <무제>, 신옥주의 <지혜의 문>, 김희성의 <포스코의 이미지> 등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예술 작품들은 철강기업의 딱딱한 이미지를 희석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삼성동의 코엑스(COEX)에는 큰 규모만큼 다양한 조형물과 미술 작품들이 있다. 아셈타워 앞 전수천의 <해상왕 장보고>는 '무역'이라는 아셈 건물의 특징과 우리나라 무역에 공헌을 한 역사 속 인물 장보고의 이미지를 연결시킨 작품이다. 이 작품을 중심으로 건물 주위를 둘러보면 힘찬 기상이 느껴지는 김선구의 <활>, 음과 양의 화합을 주제로 한 <和+습 I>, 전자 정원이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한 심영철의 <입의> 등이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공간에 주변 건물과 함께 어우러져 있다. 특



1 엄태경 <和+습 I>, 브론즈, 아셈타워 동측 외부.  
2 김선구 <활>, 브론즈, 아셈타워 동북측 외부.  
3 전수천 <해상왕 장보고>, 2000, 청동, 아셈타워 동문 외부.



1 김창렬 <Recurrence(회귀)>, 금호생명 빌딩 1층 로비 계단.  
2 송경혜 <Memoris Removing & Finding(기억의 발견)>, 금호생명 빌딩 2층 로비.

히 아셈홀 회의실 대형문을 열면 펼쳐지는 강익중의 <지구기국을 위한 벽화>는 작가 특유의 손바닥만한 타일을 1000개도 넘게 이어 붙인 벽화로 작은 정사각형 안에는 제각기 다른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이 인상적인 작품은 광화문의 흥국생명 사옥에서도 볼 수 있다.

예술성 있는 영화를 주로 상영해 영화 마니아층에게 사랑받는 영화관 '씨네큐브'가 들어서 있는 흥국생명 사옥은 건물 곳곳의 독특한 예술 작품으로 유명하다. 건물 로비를 들어서면 전면에 강익중의 <아름다운 강산>이 바닥에 새겨진 흑백의 바코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아셈홀에 설치된 강익중의 벽화처럼 <아름다운 강산> 역시 각각 다른 그림들이 그려진 손바닥만한 타일 8840개가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형태를 이룬다. 이 작품과 함께 어우러져 묘한 조화를 이루는 바닥의 흑백 바코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바코드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무엇보다 흥국생명 사옥을 상징하는 작품은 역시 건물 앞에 있는 조나단 보로프스키(Jonathan Borofsky)의 <망치질하는 사람(Hammering Man)>. 이 거대한 철제 조형물에는 모터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망치가 들려 있는 오른손이 1분 17초 간격으로 서서히 내리친다. 이 <망치질하는 사람>은 컴퓨터 혁명 시대에도 적은 보수를 받고





1 조나단 보로프스키 <망치질하는 사람>, 흥국생명 사옥 외부.  
 2 잉고 마우러, 에카드 누스 <홀른즈키의 사열>, 흥국생명 사옥 후문 로비.  
 3 강익중 <아름다운 강산>, 나무, 흥국생명 사옥 정문 로비.

사는 노동자와 철을 이용해 노동하는 현대인의 고독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 다시 건물 안의 로비 뒤쪽을 돌면 홀로그래픽 아트(Holographic Art)를 감상할 수 있다. 세계적인 조명 디자이너 잉고 마우러(Ingo Maurer)가 에카드 누스(Echard Knuth)의 홀로그램 기술을 조명에 이용한 <홀른즈키의 사열(Parade of Holonz-ki)>이 그것이다. 이 작품은 언뜻 보면 그냥 벽에 설치된 조명으로 보이지만 유심히 보면 조명을 받고 있는 금속판 위에 언뜻언뜻 보이는 빨간색, 노란색, 연두색의 알록달록한 색이 눈에 들어온다. 흥국생명 사옥에는 이외에도 신상호의 <Head 2000>, 신현중의 <뿔 있는 우계류를 위하여>, 홍승남의 <존(存)> 등의 작품이 숨은 그림처럼 배치되어 있다.

흥국생명 사옥 맞은편의 금호생명 빌딩에서는 국내 작가의 회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금호갤러리가 들어서 있는 이 빌딩의 작품들은 갤러리와 연결선상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1층과 2층의 로비와 주차장 입구에는 물방울 작가로 유명한 김창렬의 <Recurrence(회귀)> 시리즈와 박서보의 <Ecriture(묘법)> 시리즈, 송경혜의 <Memories Removing& Finding(기억의 발견)> 시리즈 등의 작품들이 걸려 있어 비교적 오래된 건물임에도 따뜻한 느낌을 준다.

Arts in Hospitals 건축물의 미술 작품들이 그 효과를 가장 잘 발휘하는 곳은 병원일지도 모른다. 병원이란 누구나 출입하기 꺼리는 곳 중 하나. 이 미술 작품들은 몸과 마음이 병든 환자들에게 병원이 약품 냄새만 나는 곳이 아닌, 마음을 치유하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삼성서울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수준 높은 미술 작품들은 주목할 만하다. 병원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보게 되는 세자르의 <엄지손가락>과 영안실 앞마당에 세워져 있는 최재은의 <시간의 방향> 등 정원에 설치된 조형물들은 긴장을 하고 병원을 들어서는 방문객들에게 어깨의 힘을 풀게 해준다. 병원 본관을 들어서면 로비 천장에 알록달록한 색상의 조형물 송변수의 <생의 오케스트라>가 매달려 있는데, 이것은 종전 병원의 칙칙한 이미지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 이외에도 유명국의 <산>, 베르나르 르네의 <부정형 선>, 이대원의 <농원1> 등 병원 곳곳에는 미술 작품들이 적재적소에 어울리게 배치돼 있다. ㉞



1 송변수 <생의 오케스트라>, 삼성서울병원 본관 1층 로비.  
 2 세자르 발다치니 <엄지손가락>, 1963, 청동, 삼성서울병원 정문.  
 3 베르나르 르네 <부정형 선>, 1994, 철, 삼성서울병원 지하주차장 입구.